



레바논 국경에서 보낸 2006년 티샤 베아브

©아셰르 인트레이터, 2007년 8월 4일

아브월 9일(티샤)은 전통적 유대 금식일입니다. 연이어 일어난 역사적 참사들, 특별히 두 성전의 파괴(주전 586년, 주후 70년)와 스페인에서의 추방(1492년)을 기리며 금식을 하는 것이요. 올해는 큰 아들 예에스켈과 그 친구(이자 터키의 약혼자인) 존 오토와 하루 일정으로 북부 “연장”에 가서 금식하며 증보했습니다.

수요일 밤에는 카르멜 종회에서 열린 연합 기도 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이 곳에는 에탄 쉬쉬코프, 다비드 데이비스, 요시 오바디아, 다니엘 야아브, 탐 에스, 요세프 아다드, 아난 루카스, 쉬무엘 아와이다, 클라우드 예자구리, 존 메이어스, 웨인 윌스덴, 아리 소르코람 등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과 증보의 모습이었는지요! 우리는 요엘서 2장을 읽고 “낭설과 단 사이에서 울었습니다.” 전시 상황으로 켜지는 월씬 더 정결하고 성숙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외적으로 모두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무슬림 광신도들의 지아드에 맞서고 있고, 내적으로는 성도로써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세속적인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같은 전쟁의 두 전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두려움과 욕욕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는 공포에 맞서 싸워야 했던 한편, 밧세바와는 정욕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해야 하지요.

목요일 아침 우리는 악코에 갔습니다. 카슈샤 공격이 있는 지역에서는 가이 코옌이 안내를 맡아 주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사이렌이 울려 가까운 폭격 대피소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 우엔 악코의 빈곤 지역 대피소에 식품 패키지를 나누어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또한 감정적 상처, 낙심, 절망감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머지않아 폭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네 명의 민간인이 죽고,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약코에서 해변을 따라 올라가 로쉬 아니크라 지역 레바논 국경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국경 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하루 종일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경 지대 짜아리트 마을에 공격이 특히 심했습니다. 바로 국경 건너 편에서는 에스볼라가 대전차 미사일을 쏘아 메르카바 시만-3 탱크에 타고 있던 세 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숨졌습니다.

북부 갈릴리 마을을 따라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는 고속도로 양쪽으로 뻗어있는 “이중” 마을 마알롯-타르시아에 이르렀습니다. 마알롯은 이브리 이름(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쪽)이고, 타르시아는 아랍 이름(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쪽)입니다. 갈릴리 지역 마을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 두 무리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또 안 발의 카슈샤 미사일이 날아와 세 명의 아랍 청소년들이 죽었습니다.

이 날이 금번 전쟁에서 가장 맹렬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1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군인 4명, 아랍인 3명, 민간 유대인 5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스라엘 군대가 남부 레바논 안전 지대의 통제권을 완전히 확보하는 데 성공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안 곳을 따라 엄청난 공격이 가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 전쟁과 군사 전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보면, 많은 전쟁과 함께 많은 찬양이 등장합니다. 시편을 제외하면 계시록만큼 경배가 많이 나오는 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완란과 동요, 분쟁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타난다는 사실 만으로도 사탄의 군대는 격노합니다. (계 12) 이 신부가 심판과 완란이 일어나는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되시다는 것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영적 기우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 날은 또한 실로 이상한 성명들이 발표되었는데, 나스랄라가 텔 아비브를 폭격하겠다고 위협을 했고,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범 이슬람 회의에서 56 개국 대표들 앞에 중동 문제의 해결책은 “이스라엘 국가의 파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무슬림들이 모두 무기를 내려 놓는다면,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기를 모두 내려 놓는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지요.

영적 전쟁은 국제 언론에서도 드러나는데, 어떤 보도를 보면 얼마나 편향된 시각을 보이는 지 이슬람의 선전을 덮어주려는 듯 보입니다. 고집어서 말하자면, 영국의 BBC와 프랑스의 여러 언론이 그러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시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는 평화 협정을 맺으려면 반드시 에스볼라의 무장을 꺼지야는 안전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슬람 지하드 지도자들의 증오 어린 성명들과 유럽 언론의 왜곡된 모습은 예슈아의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안다” 고 아셨지요(요 8:44). 영적 전쟁의 일부는 죄악, 죽음, 재앙을 일으키는 거짓과 철학에 대한 것입니다. (고후 10:3~5)

대부분의 경우 언론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은 의생된 레바논 민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두가 무고히 사상을 입은 이들에 대해 조의를 표했지만, 그들이 왜 미사일 발사대가 있던 건물에 있었는지는 의심에 봐야 합니다. 어떻게 거길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발사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거나 혹은 발사대가 그들이 사는 곳으로 옮겨졌겠지요.

이 날은 또한 CNN에서 “백양목 역명” 대변인으로 레바논의 크리스천이자 이슬람 지하드 테러의 피해를 입고 현재는 미국에 살고 있는 브리짓 가브리엘의 인터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 에스볼라의 인프라를 강하게 공격할 것을 촉구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레바논 사람들은 에스볼라에 기가 질렸지만 어쩔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극단주의 이슬람과 테러리즘을 비난하며, 오늘날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온건파 무슬림들에 차별이 없으며, 실상 서구 사회 전체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www.americancongressfortruth.com을 참고하십시오.

이 전쟁이 영적이라는 것은 나스랄라가 에스볼라 군사들을 ‘알라의 병사’ 라고 부르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의 영적인 면을 보고 있습니다. 단지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슬람 지하드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열리고 예슈아께서 정복하는 왕으로 돌아오실 때 우리는 그 분을 아들의 군대 장관으로 보게 됩니다. (계 19:11~15) 여오수아가 여리고 전투 전에 만났던 그 군대 장관이십니다. (수 5:13~15) 그 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영원을 이르는 말은 ‘네 짜크’ 인데, 이 말의 어원은 승리를 뜻하는 ‘니짜콘’ 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과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를 와목케 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분이 이 군대 장관이었던 것입니다. 그

분은 우리에게 신원의 '날' 이 이르기 전 은혜의 '애' 를 주신 것입니다. (사 61:2) 그 분께서 왕이신 메시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깨림하시어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한 열국을 치실 것입니다. (시 2) 복음의 이러한 면('군사적 대립' 이 나타나는 부분)을 결코 간과 예언 안될 것입니다.

티샤 베아브의 겨주와 영벌은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올해 수천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몸 양쪽 모두에게서 '비난' 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적 전쟁의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남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 새로운 연합과 정결함, 권능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

이번 달에 우리는 모든 물질 후원자들에게 아셰르 목사님이 내쉬빌 벨몬트 교외에서 7월 15일에 선포한 '영적 전쟁' 말씀 테이프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리바이브 이스라엘이 지속하고 있는 사역-지역 전도, 예언적 찬양 사역, 아아바트 예슈아 교외, 제자 훈련 프로그램, 젊은 이스라엘 청년들을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 온세계로 보내는 일, 빈곤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 드립니다.

번역: 고병연